

□ 정부시책 □

공산품 안전검사제도 개선

산업자원부는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안전검사의 세부절차 및 방법을 정한 안전검사제도 운용요령을 공산품 안전검사제도 운용요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내용 개정을 위하여 '98. 7. 27(월) 개정(안)을 입안 예고 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수입의 경우 시료검사에 합격한 경우 확인검사의 시기 및 장소를 국내출고전 안전검사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통관 지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 안전검사시 확인하는 사후봉사체제 구축은 안전성 확보와 관련이 없어 삭제하고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부담을 완화시켰고
 - 또한 시중 유통중인 상품중 시료를 확보하여 실시하는 사후검사 실시기관을 국립기술품질원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검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켰음
- 개정안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 그동안 확인검사를 위해 통관이 지연

됨으로서 발생하는 불편을 제거하여 민원인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관세청의 통관절차 간소화시책 추진에도 부응하며
- 사후봉사체제의 의무적 구축을 위한 비용을 절감하여 기업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임

1. 공산품 안전검사제도 개요

- 근거
 - 품질경영촉진법
- 목적
 -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공산품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
- 대상품목
 - 사전검사 품목 : 출고전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산품
 - 압력솥, 작동완구 등 17개 품목
 - 사후검사 품목 : 출고후 유통중인 상품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공산품
 - 합성세제, 저독성페인트 등 32개 품목

2. 현행 안전검사제도의 문제점

- 국내 공산품에 대해서는 1회의 안전검사를 받고 있으나, 수입품은 시료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확인검사를 통관전에 받도록 하고 있어 통관지연에 따른 불편 야기
- 제품의 사후봉사체제는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음에도 이의 구축을 의무화하여 비용부담에 따른 가격상승 및 불필요한 통상마찰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
- 사후검사 대상품목에 대한 안전검사를 산업자원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어 안전검사기준을 정하는 기관(국립기술품질원)의 전문성 활용 미약

3. 개정안의 주요골자

- 시료검사에 합격한 수입공산품에 대한 확인검사의 실시시기 및 장소를 통관전, 보세창고에서 국내출고전, 안전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한 장소로 전환하여 통관지연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제거함
- 수입공산품의 시료검사 및 국내공산품의 사전검사이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후봉

사계획서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완화함

- 시료검사와 확인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동 내용을 관할 세관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불법제품의 국내유통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국립기술품질원도 사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 및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함.

4. 기대효과

- 수입절차 간소화로 통관절차 간소화시책에 부응하고 불필요한 통상마찰 요인제거
- 안전검사이요건 완화로 비용부담 완화
- 사후검사품목에 대한 검사절차 보완으로 안정성 제고

5. 향후 추진계획

- 입안예고('98. 7. 27~8. 17)를 거쳐 의견수렴후 개정고시
- '98. 9. 1 시행계획

'99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계획 확정

산업자원부는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석탄가스를 내년에 추진할 대체에너지 개발분야로 선정, 이를 개발하는 기업, 연구소, 학계 등에 총

산화복합발전, 태양열, 풍력발전 등 10개 분야

11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정부, 학계, 연구소, 산업계 인사로 구성된 대체에너지기술개발 전문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실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동 계획에 의하면, '99년도 연구 목표를 중점기술개발을 통한 시장 창출 및 확대에 두고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석탄가스화복합발전, 태양열, 폐기물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소수력, 석탄이용, 수소에너지 등 10개 분야에 110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특히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태양열, 석탄가스화복합발전 등 중점기술분야에 연구비의 약 60% 이상을 투자키로 하였다.

또한 내년에는 기술개발 기간 단축을 위하여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심하고 기술개발에 장기간이 요구되는 기술분야는 국제공동연구 또는 기술이전을 통한 중간 진입을 추진하며, 기술개발이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시범적용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

하고 기업의 위험부담을 줄여 상용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대체에너지 기술은 향후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 취약성을 극복하고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도모하며, 청정에너지로써 환경 개선에 부응하고, 화석에너지의 고갈에 대비한 미래 에너지로써 정부는 1988년부터 1997년까지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에 총 1,170억원(정부 : 638억원, 민간 : 53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태양열 온수기, 태양광발전, 폐기물 소각열회수, 메탄가스 이용, 풍력발전 등은 현재 상용화되어 보급중에 있다.

내년에 수행할 신규공모과제는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분야의 과제로 동 과제는 8월 31일까지 에너지 자원기술개발지원센터(서초구 방배동 소재, 전화 02)5809-341~6)에서 공모하여 공개 평가등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 확정할 예정이다.

첨단기술 · 지식산업 '수출주도' 예고

신정부가 추진하는 21세기 산업정책방향에 의해 수출주조가 기존의 주력산업에서 첨단기술 · 지식산업 위주로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가 공업발전심의회에 내놓은 '신

정부의 산업정책방향'에 따르면 첨단 · 지식산업의 수출비중은 지난해 29.9%에서 2010년에는 46.8%로 증가하는 반면 자동차 · 조선 · 일반기계 · 철강 · 유화 · 일반전자 · 섬유 · 신발 등

기존 주력산업의 비중은 '97년의 70.1%에서 2010년에는 53.2%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의 수출비중은 '97년의 16.4%에서 2010년에는 20.3%로 전체 수출을 지속적으로 주도해 나가며 수출비중이 크게 낮았던 정밀화학·신소재·생물산업 등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또 첨단기술·지식산업의 제조업내 비중도 '97년의 30%에서 2010년에는 46.6%로 높아지는 반면 자동차·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의 비중은 70%에서 46.6%로 하락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첨단·지식산업의 수출 확대 및 구조고도화를 위해 21세기 한국형 유망 신산업을 발굴키로 하고 '신산업발전위원회' 전문작업팀으로 하여금 추진계획을 마련토록 하며 8월부터 11월까지 분야별 전문가 및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구체적인 작업을 추진해 연말까지는 신산업발전방안을 확정·시행키로 했다.

또 21세기형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 벤처캐피탈회사의 설립, 창업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해 창업초기단계의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리고 코스닥시장 및 에인젤(개인투자자) 시장을 활성화하면 벤처기업 창업타운, 벤처빌딩 조성 등 벤처기업에 대한 입지제공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체들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전국 12개 시·도에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설치, 중소기업에 대한 일관 수출지원체제를 구축하며 창업 및 벤처기업, 내수기업중 연간 1천개씩 5년간 5천개 업체를 수출전문 기업으로 육성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한편 산업연구원(KIET)은 21세기 한국형 유망 신산업분야로 정밀화학·메카트로닉스·우주항공 등의 지식기반 제조업, 정보통신서비스·소프트웨어 등의 지식기반 서비스업, 첨단작물 등의 지식기반 서비스업, 첨단작물 등의 지식기반 1차 산업을 예시하고 지식기반산업의 수출이 '99~2003년까지 연평균 11.6% 증가하는 반면 자동차·철강·섬유 등 기존 6대 주력산업은 4%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輸出비중 25% 넘으면 '벤처기업' 인정

앞으로 특허나 실용신안 등 신기술로 만든 제품의 수출액이 총 매출의 25%를 넘으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된다. 또 중소기업청과 특허청

외에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국립기술품질원에서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과 벤처기업 확인요령을 개정, 8월 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중기청은 그동안 특허, 실용신안 등을 통한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를 넘는 경우에만 벤처기업으로 인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인정하는 신기술로 만든 제품의 수출비중이 25%를 넘으면 벤처기업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의장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매출액 등과 상관없이 기술품질원 등에서 사업성이 유망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벤처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벤처기업 선정에서 매출액

기준보다 사업성평가 기준을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인정하는 신기술 사업에 첨단기술 개발사업, 청정생산기술 개발사업, NT(신기술)마크, EM(우수자본재)마크, 컴퓨터 프로그래머저작권사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등을 추가했다.

연구비등 매출액, 수출액 등의 증빙서류를 작성하는 기관도 공인회계사에서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로 확대했다.

한편 중기청은 지금까지 1천여개사에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이번 조치로 벤처기업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 발표

올해 무역의 날 포상업체 선정시 수출실적과 함께 무역수지 개선, 신시장개척, 수입대체에 기여한 기술개발 제품의 수출 등 수출의 질적고도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 수출실적을 인정함에 있어 30대 계열기업군 소속업체간 거래에 의한 로컬수출인 경우 실적계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공급업체나 수출업체 중 한 업체의 수출실적만 인정되고 수탁가공수출은 외화가득액만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금 수출의 경우 가공시설을 직접 보유하지 아니한 업체가

빈번한 수출입으로 수출실적을 높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 수출액에서 총 수입액을 뺀 순외화가득액만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되 내수용으로 수입한 금액은 금 총 수입액에서 제외된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11월 30일 제35회 무역의 날에 무역진흥 유공자를 포상키로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포상요령을 마련, 발표했다.

포상요령에 따르면 올해 무역의 날 포상은 예년과 같이 수출업체에 수여하는 '수출의 탑'

과 수출업체의 대표자 및 종업원, 기타 무역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정부포상'으로 나눠 실시한다.

수출의 탑은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백만불대 탑 2종(100만불, 500만불)과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없이 적용하는 천만불대탑 2종(1천만불, 5천만불)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신설되는 150억불대 탑을 포함해 억불대탑 6종(1억불, 5억불, 10억불, 50억불, 100억불, 150억불) 등 모두 10종으로 나눠 시상한다.

신청자격은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처음으로 해당 수출의 탑 단위 수출실적을 달성한 업체로서 수출증가율이 당해 기간중의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율 6.3%를 넘어야 한다.

정부포상은 같은 기간중 수출실적이 1천만 달러(중소기업은 100만달러)를 넘는 업체가

운데 전년도 수출실적을 초과한 업체의 대표와 종업원, 무역지원 유공자에게 수여되는데 수출의 질적 고도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 우대키로 했다.

그러나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련규약(규칙)에 의거 적색거래처로 구분조치된 업체(자) △최근 5년 이내에 훈장을 받은 자 △산업재해율이 높은 기업체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 △중대재해,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체 및 그 임직원 △기타 상훈법 또는 정부포상업무 지침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포상에서 제외된다.

포상신청서 양식배포는 8월 4일부터 17일까지, 포상신청서 접수는 8월 5일부터 21일까지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센터(전화 551-5336~9) 및 한국무역협회 각 지방사무소에 담당한다.

'98 하반기 국산신기술 인정 예정기술 공고

과학기술부는 1998년 하반기 「국산신기술 인정」 예정기술을 국민에게 알려 이의 신청 등의 의견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 분야별 인정예정기술

○ 전기전자분야(24건)

| 기 술 명 | 회 사 명 | 인정기간 |
|--|------------|------|
| 0.5mm Pitch 초정밀 S-Shape Type Stacking Connector | 골든콘넥터산업(주) | 2년 |
| 고속 양면 Scan용 광학계 설계에 의한 장표 자동인식 처리기술 | 기산전자(주) | 3년 |
| 154kV 송전선로 보호용 디지털 계전기 제작 기술 | 기인시스템(주) | 3년 |
| 그라인더용 고속전동모터의 인버터 일체화와 냉각을 위한 효율적 구성 | 다원산전(주) | 3년 |
| 생체전기임피던스법(BIA)을 이용한 부위별 체성분 분석기술 | 바이오스페이스(주) | 2년 |
| ATAPI 방식 4-채널 RAID컨트롤러 | (주)보광미디어 | 2년 |
| 모니터용 브라운관 전자파 차폐막 소재 및 저온형성 기술 | 삼성전관(주) | 2년 |
| Auto-Tuning, Coarse에 의한 TFT-LCD 구동기술 | 삼성전자(주) | 2년 |
| 철계합금소재 리드프레임에 적용가능한 팔라듐(Pd) PPF | 삼성항공산업(주) | 3년 |
| MPEG을 이용한 음향 재생장치 | 새한정보시스템 | 2년 |
| 언어습득장치(두뇌구조)에 음향 및 영상을 자동반복 기억 시켜주는 A/N 자동제어기술 | 서부산업(주) | 2년 |
| 초음파를 이용한 액면의 수위를 비접촉식 방법으로 정밀하게 측정하는 수위 레벨 측정기술 | (주) 신 창 | 2년 |
| 이중화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설계 기술 | 엘지산전(주) | 2년 |
| 능동 역률 보상이 가능한 인버터기술 | 엘지전자(주) | 2년 |
| 색선택 Filter를 사용한 DVD/CD 겸용 광 Pick-up기술 | 엘지전자(주) | 3년 |
| Frame Memory를 이용한 Time Lapse Recording기술 | 엘지전자(주) | 2년 |
| TWTA(Traveling Wave Tube Amplifier : 진행파관증폭기)용 전원 공급장치 | 엘지정밀(주) | 3년 |
| 영상신호를 이용한 동작자동감지 기술 | 엘지하니웰(주) | 2년 |
| 금속과편 감시 시스템 설계기술 | (주)우리기술 | 3년 |
| 고정밀 · 고효율 프로그래머블 직류전원 공급장치 | (주)인터액트 | 2년 |
| 지능형 일체폐쇄 변전식 패키지 시스템 구축기술 | (주)케이디파워 | 2년 |
| 광투과 · 자기 · 이미지 소자의 결합에 의한 다금종 지폐인식기술 | (주)푸른기술 | 2년 |
| 투명도전막필름을 이용한 고휘도 저전력 전계발광시트 제조기술 | (주)프 리 윌 | 2년 |
| IGBT를 이용한 철도차량용 추진시스템 | 현대중공업(주) | 3년 |